

금남로에서



장필수  
논설실장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에서도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지역에서 더 관심을 받은 이유는 전남의 의료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한의사 제외)을 밑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도 평균 미만이고 필수 진료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도 찾아 보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웬만한 질환만 있더라도 광주와 서울 등 대도시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전남에 국립대 의대 신설해야

특히 주민들의 고령화로 암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데 전남에서 삼성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1만7000여 명에 달한다. 다른 질환 환자까지 포함하면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전남지역 환자 수는 연간 6만여 명이나 된다. 서울 병원에 가려고 이른 새벽부터 기차를 타야 하고 입원할 경우 가족들은 병원 인근 여관을 버텨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의료유출도 심각해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의료기관의 의료지출 비중은 12.8%로 전국 평균

의대 정원 확대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9.5%)보다 3.3% 포인트 높았다. 의대 정원 확대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전국에서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어 의대 설립이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인 탓이다. 전남도는 국립대가 있는 목포와 순천에 의과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3일 전국 체전 개막식 참석차 목포를 찾은 이후 교육부총리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대 정원만이 아닌 국립 의과대 설립을 역설한 점도 이런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 세명 가운데 두명 꼴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볼때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반발로 10% 감축후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있다. 선진국들은 의사 수를 늘려가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의대 정원을 줄여 의사 수 양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형국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이렇다보니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도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명으로 그해 OECD 평균(4.5명)에 한참 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빠른 고령화로 2050년에는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보고서를 내놓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이 악단체로 전락한 의사단체의 반발로는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2000년 의대 정원 감축을 이룬데 대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총파업과 집단 휴진으로 맞서 무산시킨 추억(?)이 있다. 당시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0년보다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대 중원이 아니라 외과, 소아과 등 필수로 분야 수가 개선 등으로 성형이나 피부과 등으로 쏠리는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의사 수 양산을 막으려는 꼼수에 밖에 비치지 않는다. 병·의원에서 월급받는 의사 연봉은 2020년 기준 OECD 평균이 11만 866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만 2749달러(2억5600만원)다. 선진국 의사들의 연봉이 우리의 60% 수준이다. 의사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필수외과 분야까지 인력이 공급되는 '낙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공의대에 지역의사제 도입도

전남 입장에서 보면 의대 정원 확대는 기본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소규모 기준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최절대라고 할 것이다. 지역민들의 염원처럼 목포대나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입학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지역의사제 역시 특정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3년 전 정부는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해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외과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확정했다가 의사단체에 밀려 포기한 적이 있다. 지금은 국민들의 든든한 여론이 있다. 19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은편칼럼

진주성과 호남 의병

서 일어났다. 나라와 왕을 구하겠다는 근왕병들이었다.

호남에선 제일 먼저 나주의 김천일이 나섰다. 5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했다. 그는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친 문신으로 수월부사 시절 탈세를 일삼던 토호들에게 농민과 균등하게 세금을 매겼다가 모함을 받고 파직되어 향리에 은거한 선비였다. 매천 황현의 말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의리는 없었다. 그러나 3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왕과 나라를 구하겠다고 의주를 향해 돌진했다. 강화도와 수원 독산성에서 애적을 맞아 싸우는 등 많은 전과를 올리고 이듬해 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하여 성이 함락되자 아들 상건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했다.

광주의 고경명은 담양에서 유팽로, 안영 등과 거병하여 의주로 향하다 금산 전투에서 차남 고인후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때 살아남은 장남 고종후는 복수를 다짐하며 이듬해 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하여 끝내 항전하다 김천일과 함께 순절했다.

최경회는 모친의 시묘살이 중 파천 소식을 듣고 두형남과 함께 화순 삼전리에서 의병을 모아 전투에 나섰다. 장형 최경운은 오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는 진주

성 2차 전투에서 순절했다. 그의 후처인 노개는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여 남편의 원수를 갚았다.

장성의 김경수는 고경명의 순절 소식을 듣고 기호간, 김제민 등과 함께 장성 남문에서 창의했다. 그의 아들 김극우, 김극순은 의병대장 김제민과 함께 용인까지 출격하여 싸우고 이듬해 진주성 2차 전투에 참전하여 끝내 항전하다 순절했다. 이외에도 임계영, 장운, 강희열·희보 형제 등 수많은 호남 의병들이 진주성에서 목숨을 바쳤다. 진주성은 호남 의병들의 충혼이 잠든 성지로 의미가 깊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 의병은 무려 1346명(전남 978명, 전북 368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왜적이 있는 곳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싸웠다. 이순신 장군의 휘하 장교 143명 중 호남 출신이 136명으로 주축을 이루었고 전라좌수영의 수군들은 대부분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등의 향민들로 이 지역 선비, 농민, 어민, 승려 등의 의기와 충무국의 지력이 응집되어 23전 23승이라는 불멸의 신화를 이룬 것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한 것은 호남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일컫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호남의 의병 정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광주에서 청년문화기획자로 산다는 것

하는 사람들. 나에게 문화기획자는 그런 사람이었다.

문화기획자의 활동이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다. 수년간 경력을 쌓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일구어 문화기획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의 작은 기획을 경험한 사람도 문화기획자라 말했다. 문화기획자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서 힘을 합치기 어려웠고, 같은 문화기획을 하면서도 서로 비난하는 문화도 만연했다.

나의 시작은 강연 문화기획자였다. 강연대회와 토크 콘서트를 기반으로 기획을 시작했고, 그 일을 7년 정도 하고서야 광주청년주간 총감독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자신의 분야를 기반으로 광주 청년문화를 총괄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기획자라는 단어 앞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붙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올해 광주청년주간 테마는 '청년의 이야기로(路) Re:Feel'이었다.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청년의 취향, 성향, 고민, 라이프 스타일 등을 망라한 의미를 담은 주제로 청년의 이야기가 가득한 길의 형태로 축제장을 조성하고자 했다.

청년들의 축제인 광주청년주간뿐만 아니라 광주의 다양한 청년 문화와 예술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청년들이 광주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문화생활의 부족을 꼽을 만큼 청년들은 문화행사를 선택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주의 문화와 예술은 청년에게 가혹했다. 광주라는 광역시에서 이름 있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기 위해 서울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로 가야했고 심지어 여수, 전주 등의 더 작은 도시로 가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문화와 예술 또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주체가 사라지니 당연한 수순이다.

2023년도 광주시 체육진흥 예산을 제외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총 2473억 원이고, 이 중 청년 문화예술 정책의 총 예산은 20억 80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예산 중 1%가 채 되지 않았다. AI 검색 엔진을 통해 '특·광역시별 청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 부산이 3.00%, 서울 2.86%, 대구 2.50%, 인천 2.00%, 대전 1.67%, 울산 1.60%, 광주 0.60% 순서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역시 별 청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평균적으로 약 2% 정도인 것에 비해 광주는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광주청년주간 총감독을 하면서 청년주간 기획과 운영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앞으로 현장에서 좋은 문화를 기획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문화기획자와 예술가를 위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책임감을 가져보려 한다.

더 나은 광주의 청년문화를 위해 기획자와 예술가 모두 다시 한번 반발하면 좋겠다.

社說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해 미디어아트 메카로

광주시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국립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이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2020년 10월 민선 7기 당시 광주시가 매입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3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다.

광주시는 폐업한 호텔 부지(4만 993㎡와 건축물 1만 5682㎡)에 호화 주택 단지 건립이 추진되자 3년 전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369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후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해 1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시민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막대한 혈세를 들인 부지를 단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따라 민선 8기 들어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그 사이 호텔엔 흉물로 방치되고 매입 대금에 대한 이자만 1년에 18억 원이 넘게 들어가면서 활용 방안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

광주시는 고민 끝에 호텔 부지에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 디지털아트관(분관)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국립 미술관 분관 유치는 2000년대 들어 광주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 숙원 사업의 하나다. 국립 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기로 한 것은 미디어아트 중심도시인 광주의 문화 정체성과도 맞아 떨어진다.

분관은 디지털아트관이란 이름에 걸맞게 2D 형태의 미술 작품을 디지털화해 가상공간에서 구현하고 주목받는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광주를 미디어아트 메카로 만드는데 걸린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미술관이 들어선다면 무등산 자락과도 잘 어울려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치가 실현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유초중고 교육 예산, 경제 논리로 접근 말아야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긴급재정으로 기초과학 R&D 분야에 이어 교육 분야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 554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큰 폭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교부금 결손액은 전남 6239억 원과 광주 3385억 원 등 1조 원에 육박한다. 예산 재정 결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남은 320만원(전국 평균 180만원)이 줄었다. 도교육청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조성한 '안정화기금' 마

지 예산 결손액보다 2011억 원이나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 재정을 올해보다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 교육계는 재정 결손액 누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초과학 R&D와 교육 분야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유·초·중·고교 학생들은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동량(棟樑)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교육 예산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교육청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재정 건전화를 통해 학생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초·중·고교 교육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는 미래 한국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이다.

無等鼓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로 한반도의 가을이 점차 짧아지면서 그 오통한 감성을 느낄 기간이 다소 줄었지만, 가을은 감성의 계절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감성을 자극하는 계절 가을을 대표하는 꽃은 단연 국화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매년 가을이 오면 노란 국화꽃 화분 하나를 집에 들여 부족해지면 가는 감성을 채워보고 싶은 욕망을 느끼곤 한다.

지천에 있는 국화가 감성의 계절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 된 것은 그 우아한 자태와 지극한 향기 때문일 것이다. 국화의 자태와 향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뽀뽀뽀해도 다양한 색깔에서 오는 은근한 영향력이 '감성 충전'의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식물계서 가장 진화한 '신이 만든 마지막 꽃'이라고 불리는 국화는 크게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국화와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들국화(구절초, 개미취, 속부쟁이 등 산야에 피는 야생국화)로 나뉜다. 월동이 가능한 여러해살이 화초로 뿌리만 멀쩡하다면 화분이나 노지에서 키워 이듬해도 꽃을 볼 수 있고 키우기도 수월해 우

리에게 친근한 식물이다. 크기와 색깔도 다양한데 관상용은 꽃송이의 크기에 따라 아주 큰 것은 '대국'이라 하고 중간 것은 '중국', 작은 꽃송이 국화는 '소국'이라고 부른다. 꽃 색깔은 보통 노란색과 흰색이지만 빨간색과 보라색 등 다양하다.

시한 것은 국화가 상징하는 꽃말이다. 보통 평화와 지혜, 절개로 알려졌지만 색깔과 품종에 따라 각기 다르다. 노란색 국화는 실망과 짝사랑을 의미하며 빨간색 국화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상징한다. 장례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흰색 국화의 꽃말은 성실과

진실, 감사를 뜻하고 보라색 국화는 '내 모든 것을 그대에게'라는 의미라고 한다. 가을이 왔지만 갑박하면 가을 감성을 느낄 수도 없는 '감정 없음'의 아주 삭막한 시대가 돼버렸다. 흔한 꽃 국화에 감성을 채워야 하는 슬픈 현실이 아쉽지만 하

다. 지역 곳곳에서 가을꽃 축제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다. 이번 주말 가족과 꽃 구경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빨간색 국화를 선물해 보면 어떨까.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기 고



김경한  
이아기브릿지 대표  
2023 광주청년주간 총감독

문화기획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모두가 선망하고 도전했던 직업이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기에 문화 기획에 뛰어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광주에서 문화기획자라는 사람을 예전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만일 내 정보가 부족해서 그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 자신만의 무언가를 기획해 보여주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생생하고 소멸이 이렇게 삽시간에 펼쳐질 줄은 미처 몰랐다.

광주에서 문화기획자는 배고픈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재를 털어야 기획을 해야 했고, 그 결과는 오히려 본인이 감당해야 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획자는 모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상황을 마주했다. 문화를 기획하는 일은 분명 남을 위한 일이다. 자신을 위한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대중을 향한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와 몸을 소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